

## 조선 후기 문인 趙熙龍 詩文의 蘇軾 관련 用典 양상

류 소 진\*

### <目次>

- |               |                   |
|---------------|-------------------|
| I. 서론         | III. 蘇軾 관련 일화의 활용 |
| II. 蘇軾 語句의 차용 | IV. 결론            |

### I. 서론

蘇軾(1036~1101)의 문집이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로 유입된 이후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약 900년 동안 고려·조선의 많은 문인들이 지속적으로 소식의 시문을 즐겨 읽었고 또 그것을 학습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물론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된 소식 추앙과 학습의 열기가 늘 비슷한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었다. 각 시기별로 사상적 배경이나 사회적 기풍 등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문단에 끼친 소식의 영향에도 정도의 차이가 생겼으며, 문인들이 소식을 학습하고 추앙하는 면모도 달라졌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朴齊家(1750~1805)·申緯(1769~1847)·金正喜(1786~1856) 등의 燕行 使臣들이 소식의 열렬한 추종자였던 청조 학자 翁方綱(1733~1818)과 교류하던 중 그의 ‘東坡癖’에 영향을 받고 조선으로 돌아와 이러한 풍조를 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는 소식의 시문집과 서화를 수집하는 것을 취미생활로 삼거나 소식의 생일에 소식의 초상화를 걸어 놓고 제사를 지내며 獻詩를 쓰는 등 이전 시기에는 볼 수 없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었던 새로운 소식 추앙 양상이 생겨났다.<sup>1)</sup>

필자는 이러한 조선 후기 문단에 새롭게 성행한 소식 추앙 양상에 관심을 갖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조선 후기 문인 趙熙龍(1789~1866)이 ‘蘇門弟子’라는 인장을 사용할 정도로 소식을 향한 애정이 남달랐을 뿐 아니라, 시·서·화 등 다방면에서 소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조희룡은 주로 19세기 전반에 활동한 시·서·화에 두루 능했던 중인층 예술가로, 金正禧 일파 가운데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했으며 예술의 창작 및 그것의 이론화에 있어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교유 관계가 매우 광범위하여, 당대 예술계를 주도한 김정희를 비롯하여 김정희와의 관계가 돈독했던 權敦仁 등 당시의 권위 있는 문인들과 밀접하게 교류했을 뿐 아니라, 閔巷의 중인층과도 활발하게 교류하며 그들의 문집이나 편저에 대한 서문을 남기는 등 19세기 여항 문예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던 그가 63세 되던 1851년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한 차례 유배를 가게 되었다. 그는 그해 7월에 유배령을 받고 荏子島로 떠나 1853년 3월 유배에서 풀려날 때까지 1년 8개월 동안 유배 생활을 했다.<sup>2)</sup> 중인층이 권력 투쟁으로 인하여 유배를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인 데다, 63세나 되는 고령에 고향을 떠나 육지와 격절된 황량한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던 그는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는 그림을 그리거나 지인들에게 서신을

1) 조선 후기 소식 추앙 양상에 대해서는 姜慶姬, <朝鮮後期 崇蘇熱과 東坡笠履圖>(《中國語文學論集》제65호, 2010, 417-418쪽) 및 Jiwon Shin, <당호를 통해서 본 19세기초 소동과 관련 서화 소장 문화와 대청 문화 교류>(《한국문화》 제45호, 2009, 75-83쪽)에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2) 당시 왕실의 전례를 둘러싼 안동김씨 세도가들과의 공방으로 권돈인·김정희 등이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이는 金祖淳 일파가 권력을 독점하면서 견제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취한 정치적 조치였다. 이때 조희룡과 吳圭一이 각각 김정희와 권돈인의 ‘爪牙心腹’으로 지목되어 유배 길에 오르게 된 것이다. 趙熙龍 著/ 實是學舍古典文學研究會 譯註, 《趙熙龍全集1》, 서울: 한길아트, 1999, 25-26쪽 참조.

쓰거나 시·문장·전기를 짓는 등 다양한 창작 활동을 통해 유배지에서의 율적인 심사를 달랐다.<sup>3)</sup>

그런데 조희룡이 입자도로 유배 갈 때 가지고 간 얼마 안 되는 책 가운데 소식의 시집이 있었고,<sup>4)</sup> 또 유배 생활 중에 이를 즐겨 읽었을 정도로 그의 소식 시문에 대한 애호와 소식의 위인에 대한 추앙심이 매우 특별하여 주목을 끈다. 이 무렵에 그가 지은 시문을 보면 곳곳에 소식의 시문에 대한 애호와 극찬이 가득할 뿐 아니라 그가 소식의 시문을 학습한 흔적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대의 저명한 학자인 紀昀(1724~1805)은 그의 《紀評蘇詩》에서 소식의 시를 비평함에 있어 때때로 매우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 조희룡은

기효람(기운)이 소동파(소식)의 시를 비판했거니와, 소동파의 산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은 학문으로도 왕왕 후학에게 비판받는 경우가 있으니, 두 보가 말한 “앞 시대의 현인이 후생을 두려워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소동파의 시는 세상에서 중시되어 지금까지 800년 동안 자연히 정론이 있어 왔으니, 비록 한두 군데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효람의 논박 하나로 어찌 천추의 큰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겠는가? 효람은 정말로 쓸데없는 일을 했도다!(紀曉嵐批評蘇詩，以坡公山海崇深之學，往往有見詆於後學者，杜老所云：“前賢畏後生”，是耳。然蘇詩見重於世，邇來八百年之間，自有定論，雖有一二疵瑕，以一曉嵐之駁正，何有損於千秋大名？曉嵐真多事哉!)<sup>5)</sup>

3) 趙熙龍, 《趙熙龍全集1》(實是學舍古典文學研究會 譯註), 21-38쪽 참조.

4) 조희룡이 입자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쓴 자신의 편지를 직접 선정하여 편집한 《壽鏡齋海外赤牘》에 〈대숙에게(與大叔)〉라는 서신이 수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만 이곳에 가져온 것은 오직 낡은 책 몇 가지일 뿐인데, 《施注蘇詩》 중에 송만당(宋擘)이 모사한 〈동파입극도〉가 있습니다(第此携來，惟是殘編數種，而《施注蘇詩》中，有宋漫堂所模〈坡公笠屐像〉)”라는 내용이 있다(趙熙龍, 《趙熙龍全集1》(實是學舍古典文學研究會 譯註), 46-47쪽 참조). 이를 통해 그가 입자도로 유배 갈 때 소식의 시집을 가져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책에 수록되어 있었다는 〈동파입극도〉가 조희룡의 말처럼 과연 송낙이 직접 모사한 것인지, 아니면 송낙이 소장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그림인데 조희룡이 착각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라고 하며 기운의 견해를 강하게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비록 한두 군데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운의 논박 하나로 명성을 손상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소식의 시에 대해 매우 강한 신뢰를 보였다.

또 <그림을 논하여 해남 허유에게 주다(論畫, 贈海南許維, 五首)><sup>6)</sup> 其三에서

坡老竹枝天下稀,	동파의 <죽지사>는 천하에 드문 작품
文章餘液搃光輝。	문장의 여적조차 모두 빛난다.
令人千載眞驚倒,	천 년 뒤에도 사람을 정말 경도하게 하거늘
況復先生澁墨時。	하물며 선생이 먹 뿌리던 당시에라!

라고 하며 소식의 <竹枝詞>에 대해 엄청난 극찬을 하기도 했고, 산문집 《石友忘年錄》에서

동파공(소식)의 문장은 남화노인(장자)과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 사이를 홀로 자유로이 왕래하는바, 이는 더 이상 군말이 필요 없다. 동파공이 일찍이 이르기를, “<단궁>을 많이 읽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문자에 광채가 있게 한다”고 했는데, 나는 “소동파의 글을 많이 읽어도 역시 이와 같다”라고 말한다.(坡公文章, 與南華老人, 獨往獨來於天地之間, 不必更贅. 而坡公嘗云: “多讀<檀弓>, 使人文字有光.” 余則云: “多讀坡文, 亦復如是.”)<sup>7)</sup>

라고 하며 《禮記·檀弓》을 많이 읽으면 그 사람의 문자에 광채가 난다고 한 소식의 말을 빌려, 소식의 글을 많이 읽어도 역시 문자에 광채가 나니 소식의 글을 많이 읽으라고 권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평소에 소식의 시문을 애독하고 또 적극적으로 학습했던 조희룡은 자신의 시문 창작에 있어서도 소식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으니, 그가

5) 趙熙龍, 《趙熙龍全集1》(實是學舍古典文學研究會 譯註), 84쪽.  
 6) 趙熙龍, 《趙熙龍全集4》(實是學舍古典文學研究會 譯註), 199-200쪽.  
 7) 趙熙龍, 《趙熙龍全集1》(實是學舍古典文學研究會 譯註), 62쪽.

시문을 창작할 때 소식과 관련된 典故를 자주 사용한 것 역시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할 수 있다.

魏慶之는 用事(즉 用典)를 ‘意用事’와 ‘語用事’로 구분한 바 있고,<sup>8)</sup> 彭孫遜은 ‘用古人之事’·‘用古人之語’·‘用古人之字’로 구분한 바 있다.<sup>9)</sup> 또 范寧은 典故를 古代의 故事와 前人이 사용한 적이 있는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典故의 종류를 ‘事典’과 ‘語典’으로 분류한 바 있다.<sup>10)</sup> 본고는 이러한 전인들의 용전 분류 방식에 따라 조희룡이 소식 관련 전고를 사용한 양상을 소식 어구를 차용한 경우와 소식 관련 일화를 활용한 경우로 대별하여 살펴봄으로써 조희룡이 소식으로부터 받은 영향의 일단을 알아보고자 한다.

## II. 蘇軾 語句의 차용

조희룡의 시문 가운데 소식의 시문에 사용된 語句를 그대로 혹은 약간 변형시켜서 사용한 예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소식의 원래 시구를 자신의 문장에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한 예를 살펴보자.

- 
- 8) 宋 魏慶之, 《詩人玉屑》(文淵閣四庫全書本) 卷7 〈用其意用其語〉: “意用事が 있고 語用事が 있다.(有意用事, 有語用事.)”
- 9) 清 彭孫遜, 《金粟詞話》(唐圭璋編, 《詞話叢編》, 臺北: 廣文書局, 1980, 710 쪽): “사를 지음에 있어서는 반드시 먼저 재료를 선택해야 하는바, 대체로 옛 사람의 사적을 원용하려면 참신한 것을 취하고 진부한 것을 버리며, 옛사람의 말을 원용하려면 청신한 것을 취하고 평범한 것을 버리며, 옛사람의 글자를 원용하려면 신선한 것을 취하고 친숙한 것을 버리나니 이는 몰라서는 안 된다.(作詞必先選料, 大約用古人之事, 則取其新穎, 而去其陳因; 用古人之語, 則取其清雋, 而去其平實; 用古人之字, 則取有鮮麗, 而去其淺俗, 不可不知也.)”
- 10) 范寧, 〈典詮叢書序〉(范之麟·吳庚舜主編, 《全唐詩典故辭典》, 湖北辭書出版社, 1989, 2쪽): “典故就是詩文中引用古代故事和前人用過的詞語, 有來歷和出處的, 一般分爲事典和語典.”

석경(이기복) 선생께서는 연세와 덕망이 모두 높으시며 그 정신은 마치 막 떠오르는 해와 같습니다. 새해를 축하하여 울릴 물품이 없사오니 삼가 마음의 향 한 가닥으로 ‘吉祥’이라는 글자를 만들어 좌석 옆에서 맴돌게 하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옥체에 복이 덩굴처럼 연이어지기를 엿드려 빕니다. 저의 객지 상황은 전과 같습니다만 한 가지 자랑할 만한 것은 있습니다. 금년 대보름날 바닷가 산 위의 높다란 곳에 올라 만 리에 뻗은 은빛 파도 사이로 달을 바라보았는데, 달의 장려한 모습이 여기에서 더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유람이 내 평생에 가장 멋진 것이로다”라고 한 바로 이것입니다. 이만 줄입니다.(石經先生, 年德俱高, 精采如初日. 新年之祝, 無物奉獻, 謹將心香一縷, 結成‘吉祥’字, 繫回於座右耳. 伏惟體內迓新蔓社, 少弟客狀如故, 而有一可詫詡者. 今年元夜, 登海山孤絕處, 看月於萬里銀濤之間, 月之大觀, 止於斯矣. “此遊奇絕冠平生”者, 是也. 不備.)<sup>11)</sup>

이 글은 《壽鏡齋海外赤牘》이라는 문집 안에 실려 있는데, 이 문집은 조희룡이 荏子島에 유배중일 때 썼던 편지를 자신이 직접 선정하여 편집한 것으로 31명에게 보낸 총 60편의 편지가 실려 있다. 그중 이 편지의 서두에서 말한 석경 선생에게 보낸 편지가 총 6편 있다. 석경(李基福의 號, 1783~1863)은 의사 출신의 碧梧社<sup>12)</sup> 동인으로 평소 조희룡과 교유가 깊었던바, 조희룡은 임자도 유배 기간에도 종종 이기복에게 편지를 보내 안부를 전했다. 그는 새해를 맞아 축하 인사차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대보름날 바닷가 산 위에서 바라본 달의 장려한 모습을 자랑했는데 이 때 “이번 유람이 내 평생에 가장 멋진 것이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11) 趙熙龍, 《趙熙龍全集5》(實是學舍古典文學研究會 譯註), 56쪽.

12) 조희룡은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많은 중인 친구들과 사귀었다. 그런 교우 관계를 통해서 보고 들은 선배 중인 42명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56세에 저술한 《壺山外記》인데, 3년 뒤에 다시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 ‘碧梧社’라는 문학 동인 조직을 결성했다. 6대에 걸쳐 의원 노릇을 한 樵山 柳最鎮(1791~1869)의 집이 시냇가에 있었는데, 우물가에 늪은 벽오동이 있어서 집 이름을 벽오당이라 했고, 그 집에서 모인 시인들의 모임을 벽오사라 했다. [조선후기 신지식인 한양의 中人들(35)—조희룡이 만든 중인 문학동인 ‘벽오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827014002#sidx6374d0af8a98dbd9d158d1ac1f0d26a> 참조.

는 소식이 <6월 20일 밤에 바다를 건너다(六月二十夜渡海)><sup>13)</sup>라는 시에서 사용한 표현이다. 紹聖 4년(1095) 7월부터 儋州(지금의 海南省)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소식은 근 3년간 이곳에서 머물다 元符 3년(1100) 5월에 유배지를 廉州(지금의 廣西壯族自治區 合浦)로 옮기라는 명을 받고, 그해 6월 20일 밤에 담주에서 배를 타고 瓊州海峽을 건너가다가 가벼운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다.

參橫斗轉欲三更,	삼성이 높고 북두성이 돌아 삼경이 가까운데
苦雨終風也解晴.	그칠 줄 모르던 비와 바람도 깰 줄을 안다.
雲散月明誰點綴,	구름이 걷히니 달이 밝은데 그동안 누가 가렸나
天容海色本澄清.	하늘과 바다는 본디부터 저리 맑았거늘?
空餘魯叟乘桴意,	노나라 노인의 뗏목 타려던 마음도 괜히 생각나고
粗識軒轅奏樂聲.	현원이 올리던 음악 소리도 대략 이해하겠다.
九死南荒吾不恨,	남방 황무지에서 아홉 번 죽을 뻔했어도 한탄하지 않나니
茲游奇絕冠平生.	이번 유람이 내 평생에 가장 멋진 것이로다.

오랫동안 유배지를 전전했던 소식은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았다. 담주 유배 시절, 음식·주거환경·풍속 등이 모두 자신의 고향(四川 眉山)과 달라 적응하기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주를 떠나게 되었을 때 “나는 본래 해남 사람인데, 서촉 땅에서 객지생활을 했었네(我本海南民, 寄生西蜀州)”<sup>14)</sup>라고 한 것을 보면, 그는 자신을 사천 사람이 아니라 본래 해남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며 마음 편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시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남방 황무지에서 아홉 번 죽을 뻔했어도 한탄하지 않나니, 이번 유람이 내 평생에 가장 멋진 것이로다”라며 해남도에서의 유배 생활을 괴로움의 대상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며 긍정적으로 묘사하였음을 볼 수 있다.

13) 蘇軾, 《蘇軾詩集》(王文誥 輯註, 北京: 中華書局, 1987) 卷40.

14) 蘇軾, 〈해남의 여민표와 작별하며(別海南黎民表)〉(《蘇軾詩集》 卷43)

그렇다면 조희룡이 임자도라는 유배지에서 바라본 달의 장려한 모습을 묘사함에 있어서 소식의 이 표현을 차용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소식은 담주에서, 조희룡은 임자도에서 각각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공통점으로 본다면, 조희룡이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당시 소식의 모습과 이 시구를 떠올리며 소식의 이러한 초연한 마음을 배워 보고자 했던 것 같다. 임자도의 달이 아무리 장려하다고 해도 유배지에서 홀로 바라본 달이 그토록 아름답게 느껴지기는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나마 유배지에서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최대한 초연해지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자신의 안부를 궁금해 할 이기복에게도 이렇게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들려 주고 싶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조희룡은 단순히 소식의 이 구절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그 안에 담긴 소식의 초연한 마음가짐까지 배우고자 한 것이라 하겠다.

소식의 문장에 쓰인 어구를 약간 변형하여 자신의 문장에 활용한 예도 있다. 다음은 <고람에게 답하다(答古藍)>라는 편지글의 일부이다.

천추를 바라보면서, 원하는 바는 고람(전기)의 그림 속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뿐이네. 시 한 수를 부쳐 보내니, 이 시에 담긴 뜻을 그려서 보여 줌으로써, 울적한 이 사람을 위로해 주면 어떻겠나? 다만 맑고 웅혼하여 속세를 벗어난 문장과 거침없이 달려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필력을 언제 만나 보아 여러 해 동안 쌓인 나의 장독을 일소할 수 있을까? 이는 파공(소식)이 혜주에 있을 때 미원장(미불)에게 한 말인데, 이 말을 고람에게 전한다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나,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은 감히 자처할 수가 없는 것이네. 허허. 유량과 함께 보도록 하게. 이만 줄이네.(翹首千秋，願作古藍畫圖中人，是耳。一詩寄去，畫此詩意，示之，以慰牢騷，如何？第清雄絕俗之文，邁往凌雲之筆，何當見之，一洗我積歲瘴毒？此坡公在惠州，寄米元章語也，此語移贈古藍。當之者無愧，贈之者非敢處也。呵呵。劉郎同照，不宣。)<sup>15)</sup>

15) 趙熙龍, 《趙熙龍全集5》(實是學舍古典文學研究會 譯註), 71쪽.

古藍(조선 후기 화가 田琦의 號, 1825~1854)도 이기복과 마찬가지로 조희룡과 자주 교류하던 벽오사의 핵심 구성원이었는데, 이 편지 또한 《수경재해외적독》에 수록된 것이므로 조희룡이 임자도 유배 시절에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전기에게 시를 부쳐 보내며 이를 그림으로 그려 달라 청하면서 그가 “맑고 옹혼하여 속세를 벗어난 문장과 거침없이 달려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필력”을 지니고 있다고 극찬했다. 조희룡이 편지에서 직접 밝힌 바와 같이 이 표현은 소식의 혜주에 있을 때 그의 벗 米芾(1051~1107)<sup>16)</sup>에게 쓴 편지에서 “우리 원장(미불)을 생각하나니, 거침없이 달려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기세요, 맑고 옹혼하여 속세를 벗어난 문장이네(獨念吾元章, 邁往凌雲之氣, 清雄絕世之文)”<sup>17)</sup>라고 했던 표현에서 ‘氣’를 ‘筆’로, ‘世’를 ‘俗’으로 바꾼 뒤 두 구절의 순서를 바꾸어 사용한 것이다. 조희룡과 소식은 둘 다 유배지에 있었고 또 전기와 미불은 모두 문장과 그림에 출중한 재능이 있었다는 공통점에 착안하여, 비슷한 상황에서 소식이 미불에게 한 말을 가져와서 스스로를 소식에, 전기를 미불에 견주어 본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를 소식에 견주어 본 것이 못내 쑥스러워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나,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은 감히 자처할 수가 없는 것이네”라고 하며 겸양을 나타내기도 했다. 비록 겸허하게 표현하기는 했지만, 소식과 비슷한 상황에서 바로 소식이 썼던 표현을 떠올리고는 이를 자신의 문장에 차용한 것은 그가 평소애 그만큼 소식의 시문을 즐겨 읽었으며 또 소식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남달랐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소식의 시에 사용된 시구를 자신의 시구로 활용한 경우도 있으니, 〈섬마을에 가을이 늦어갈 무렵 문을 닫고 들어앉아 소동파의 시집을 읽었다

16) 米芾 : 중국 北宋의 서예가이자 화가로, 시문·서예·미술 전반에 조예가 깊었다. 서예에 있어서는 송대 사대가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며, 王羲之의 서풍을 계승하였다. 그림은 강남의 雲煙 어린 아름다운 자연을 묘사하기 위하여 米點法이라는 독자적인 點描法을 창시해 원말 사대와 명나라의 吳派에게 그 수법을 전했다. 소식과 자주 서신을 왕래하는 등 친분이 매우 두터웠다.

17) 蘇軾, 《東坡全集》(文淵閣四庫全書本) 卷85 〈與米元章書〉

니 그중에 자그마한 <동과입극도>가 있어 이에 그것을 잘라내어 작은 족자로 만들었다. 시를 읽다가 백학관에서 바둑 구경한 시<sup>18)</sup>를 보고는 혼연히 깨달은 바가 있어, 이에 시를 한 수 지어 족자 위에 써 놓음으로써 화상찬으로 삼는다(海國秋闌, 掩戶却掃, 閱坡翁詩集, 中有笠屐小像, 乃撒作小幀, 讀詩至白鶴觀觀碁, 欣然有得, 仍成一詩, 題于幀上, 以當像贊云爾)<sup>19)</sup>가 그것이다.

先生笠下眼如海,	선생의 샷갓 아래 안목은 바다와 같아
當時已照千古上.	당시에 이미 천고의 위를 비춰 보았네.
千古以下獨無照,	천고의 아래는 유독 비추어 봄이 없었으나
雙眼長存也無恙.	두 눈이 길이 살아 있으니 그래도 걱정 없네.
白鶴觀裡觀碁眼,	백학관에서 바둑을 보던 안목은
如今照徹無碍障.	지금도 두루 꿰뚫어보아 막힘이 없네.
眼力所到衆妙俱,	안목이 미치는 곳에는 온갖 묘리가 다 갖추어져
優哉遊哉得清曠.	여유 있고 느긋하게 맑고 넓은을 얻었네.
勝固欣然敗可喜,	이기면 물론 즐겁고 져도 또한 즐길 만하다네
此語千秋自吉甞.	이 말은 천추에 절로 길하고 향기롭네.
兩句可當五千文,	두 구절은 《五千言》과 짝할 만하니 <sup>20)</sup>

18) 소식의 <바둑 구경(觀碁)>(《蘇軾詩集》 卷42)이라는 시를 가리킨다. 소식은 이 시의 序文에서 “나는 여태 바둑을 둘 줄 모른다. 일찍이 혼자 여산의 백학관을 유람하다 백학관 안의 사람들이 모두 문을 닫고 낮잠을 잘 때 혼자 소나무 고목 밑으로 흐르는 물가에서 바둑 두는 소리를 듣고는 마음속으로 혼연히 기뻐한 적이 있어 이때부터 한번 배워 보려고 했으나 끝내 바둑을 둘 줄 모른다(予素不解棋, 嘗獨遊廬山白鶴觀, 觀中人皆闔戶晝寢, 獨聞棋聲於古松流水之間, 意欣然喜之, 自爾欲學, 然終不解也)”라고 했다. 소식은廬山の白鶴觀에서 바둑 두는 소리를 듣고 바둑을 배워 보려고 마음 먹었으나 배우지 못했고, 나중에 儋州에서 바둑 두는 것을 구경하다가 이 일을 회상하며 이 시를 지은 것이지 백학관에서 바둑을 구경한 것이 아닌데 조희룡은 이 두 가지 일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19) 趙熙龍, 《趙熙龍全集4》(實是學舍古典文學硏究會 譯註), 141-143쪽.

20) 《史記·老子列傳》에서 “老子가 이에 상·하편의 책을 지어 도와 덕의 의미를 5천여 자로 말하고 떠났다(老子迺著書上下篇, 言道德之意五千餘言而去)”라고 한 뒤로 노자의 《道德經》을 ‘五千言’이라고 한다.

已齊寵辱與得喪.	총욕과 득실을 이미 동일시켰네.
持此可遊物之初,	이러한 마음 지니면 만물의 원초에 노닐 수 있나니
飲之太和壽無量.	태화의 원기를 마셔 무량수를 누리게 되리.
公之文字在乾坤,	동파공의 문자는 천지에 존재하여
紫海明月擬奇壯.	기이하고 장엄함이 보랏빛 바다의 밝은 달에 견줄 만하리.
人人各持一瓢來,	사람마다 각기 하나의 표주박을 가지고 와서
攄得一月足供養.	달을 하나 담아 가면 공양하기에 충분하리.
元來法文無多子,	원래 법문에는 제자가 많지 않은 법
焚香稽首拜嘉貺.	향 피우고 머리 조아리며 멋진 선물에 절하네.

이 시의 제5-14구에는 <바둑 구경(觀棋)>이라는 시를 읽은 조희룡의 감개가 담겨 있다. 이 시는 소식이 儋州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 바둑 두는 것을 보고 느낀 감회를 읊은 것으로, “이기면 물론 기쁘고, 저도 또한 즐길 만하다(勝固欣然, 敗亦可喜)”라는 시구가 있는데, 본래 4언시 두 구절이었던 것을 조희룡은 7언시 한 구절로 변형시켜 “勝固欣然敗可喜”라고 인용한 후, 이 말을 극찬하며 “《五千言》과 짝할 만하다(可當五千文)”라 하고 또 “이러한 마음 지니면 만물의 원초에 노닐 수 있나니, 태화의 원기를 마셔 무량수를 누리게 되리(持此可遊物之初, 飲之太和壽無量)”라 했다. 이기면 당연히 기쁘지만 지더라도 역시 즐길 만한 바둑의 이치를 통해 깨달은, 승부에 연연하지 않는 소식의 달관한 태도를 보고 조희룡은 일종의 인생 철리를 얻은 것이다. 임자도에 유배 오게 되면서 좌절감과 패배감을 느끼고 있었을 그에게, 그것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던져 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그는 소식의 시가를 “동파공의 문자는 천지에 존재하여, 기이하고 장엄함이 보랏빛 바다의 밝은 달에 견줄 만하리(公之文字在乾坤, 紫海明月擬奇壯)”라 높이 평가했다. 이어서 “사람마다 각기 하나의 표주박을 가지고 와서, 달을 하나 담아 가면 공양하기에 충분하리(人人各持一瓢來, 攄得一月足供養)”라고 했는데, 이는 소식이 담주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지은 시 <강물을 길어다 차를 끓여 마시다(汲江煎茶)><sup>21)</sup> 제3-4구의 “바가지로 달을 떠서 항아리에 담고, 국자로 강물을 덜

어 병에 넣었네(大瓢貯月歸春甕, 小杓分江入夜瓶)”라는 구절을 차용한 것으로,<sup>22)</sup> 이 속에는 유배 생활의 고통을 잊은 소식의 초연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유배지에서 좌절과 실망에 사로잡혀 있던 조희룡에게, 그와 마찬가지로 유배 중이었을 때 쓴 소식의 이러한 시는 커다란 위안이 되었으며, 나아가 이 안에 담겨 있는 초탈한 인생관과 달관한 태도는 그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또 다른 예로, <중양절에 동파가 혜주에 있을 때 지은 시 <병자년 중구일에(丙子重九)>에 차운하다(重陽日, 次東坡在惠州時<丙子重九>詩韻, 二首)><sup>23)</sup> 其一처럼 소식의 시 2수에서 시어와 시구를 차용한 것도 있다. 다음은 이 시의 일부이다.

秋序能幾日, 가을이 며칠이나 될 수 있을까?  
 坐看赴壑蛇, 앉아서 구렁으로 들어가는 뱀을 보는 듯  
 薄醪亦可醉, 묽은 막걸리도 취할 만하니  
 短謠當長嗟, 짧은 노래 부르며 장탄식할 수밖에 없다.

우선, “앉아서 구렁으로 들어가는 뱀을 보는 듯(坐看赴壑蛇)”이라는 시구는 세월이 아주 빠르게 흘러감을 표현한 것으로, 소식의 시 <수세(守歲)><sup>24)</sup>에서 차용했다. 이 시는 소식이 수세의 풍속에 따라 설날 그믐날 밤을 새면서 이때 일어난 감회를 노래한 것이다. 이 시의 제1-6구에서 “끝나가는 한 해 모습 알고 싶거든, 구렁으로 들어가는 뱀을 보게나. 비늘 달린 긴 몸통이 이미 반쯤 사라지면, 떠나가려는 그 마음을 누가 막으랴? 하물며 그놈의 꼬리를 묶으려 드니, 아무리 애를 쓴들 어떻게 할 수 있으랴?(欲知垂盡歲, 有似赴壑蛇, 修鱗半已沒, 去意誰能遮, 況欲繫其尾, 雖勤

21) 蘇軾, 《蘇軾詩集》卷43.

22) ‘供養’이라는 표현 역시 소식이 黃州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지은 문장 <괴석공양(怪石供養)>의 표현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23) 趙熙龍, 《趙熙龍全集4》(實是學舍古典文學研究會 譯註), 136-139쪽.

24) 蘇軾, 《蘇軾詩集》卷4.

知奈何?)”<sup>25)</sup>라 했는데, 여기에서는 세월의 흐름을, 아무리 꿈꿈 잘 묶어 놓아도 결국은 끈에서 빠져 나와 구렁 속으로 들어가고 마는 뱀에다 비유한 것으로 표현이 재미있고 기발하다. 조희룡의 “구렁으로 들어가는 뱀(赴壑蛇)”이라는 시어는 바로 소식의 이 시구에서 나온 것이다. “뚬은 막걸리도 취할 만하니(薄醪亦可醉)” 역시 소식의 시구에서 차용한 것인바, 소식의 <뚬디뚬은 술(薄薄酒二首并引)><sup>26)</sup> 其一에서 “뚬디뚬은 술이라도, 차보다 낫다(薄薄酒, 勝茶湯)”라고 했고, 其二에서 “뚬디뚬은 술이라도, 두어 그릇 마시고, 거칠디거친 베풀도, 두 겹으로 입으면, 좋고 나쁜 건 달라도 취하고 따스하긴 마찬가지네(薄薄酒, 飲兩鍾. 麤麤布, 著兩重. 美惡雖異醉暖同)”<sup>27)</sup>라고 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조희룡은 소식 시에 사용된 어구를 차용하여 시를 지은 예가 많이 있으니, “빈 골짜기로 도망 올 줄을 어찌 뜻했으랴(豈意逃空谷?)”<sup>28)</sup>라는 시구는 소식의 “지금 나는 빈 골짜기로 도망 왔다(今我逃空谷)”<sup>29)</sup>라는 시구에서 “逃空谷”이라는 표현을 차용한 것이고, “문자로 사귀는 게 골육보다 낫다는, 동파공의 이 말이 아직도 또렷하다(文字之交逾骨肉, 坡翁此語尚煌煌)”<sup>30)</sup>라고 한 시구는 출처를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조희룡 스스로

25) 蘇軾 著/ 柳種陸 譯註, 《정본완역 蘇東坡詩集 1》,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275-276쪽 참조.

26) 蘇軾, 《蘇軾詩集》 卷14.

27) 蘇軾 著/ 柳種陸 譯註, 《정본완역 蘇東坡詩集 2》,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477-481쪽 참조.

28) 趙熙龍, <인근 섬에 대와 돌이 많다. 김용희가 이곳에 터를 잡고 작은 언덕 아래에 띠집을 지어 고기잡이를 생계로 삼고 글로 자작하는데 안개와 노을의 기운이 많다. 장독 어린 바다의 적막한 물가에서 이 같은 참한 선비를 보게 될 줄 어찌 알았겠는가? 이에 시 한 수를 준다(隣島饒竹石. 有金生龍義卜居於此, 結茅小阜之下, 以漁爲生, 以書自適, 頗有煙霞之氣. 豈圖瘴海寂寞之濱, 見此佳士? 乃以一詩贈之)>(《趙熙龍全集4》, 實是學舍古典文學硏究會 譯註, 110쪽)

29) 蘇軾, <夜臥濯足>(《蘇軾詩集》 卷41)

30) 趙熙龍, <신해년 8월 22일 임자도에 귀양 가게 되었다. 눈에 보이는 바와 마음에 기억되는 바를 모두 시로 지어, 아쉬운 대로 근심과 울적함을 풀었다. 모

소식의 말이라고 밝혀 놓았다.

다음은 소식의 문장에 사용된 표현을 조희룡이 자신의 시어로 활용한 예이다. <괴석 무더기 속에서 특히 기이한 것 하나를 골라 자리 옆에 놓아두고 이에 백 자를 쓴다(怪石叢中, 揀一特奇者, 寘之座右, 乃題一百字)><sup>31)</sup> 라는 시의 일부를 보자.

默計石之壽,	가만히 돌의 나이 헤아려 보니
遠溯天地初.	저 멀리 천지의 태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高山與碧海,	높은 산과 푸른 바다를
閱盡笑麻姑.	두루 겪고 麻姑 <sup>32)</sup> 를 웃어 버리겠다.
可同三仙去,	三仙과 함께 가서
參之論世圖.	논세도에 끼일 만도 하다.
龜頭與桃核,	거북이 머리와 복숭아 씨는
所託自區區.	기탁하는 바가 절로 구구해진다.

‘三仙’과 ‘論世圖’에 대하여 조희룡은 “세속에서 그린 세 신선이 나이를 논하는 그림에, 한 신선은 ‘海屋添籌’라 했고, 다른 신선은 ‘桃核齊山’이라 했으며, 또 다른 신선은 ‘坐龜出頭’라고 했다. 이는 모두 천지가 갈라진 이후의 말들이다(世俗所畫三仙論年, 一云: ‘海屋添籌’, 一云: ‘桃核齊山’, 一云: ‘坐龜出頭’, 皆肇判以後語)”라는 自註를 달아 놓았는데, 이는 《東坡志林》의 〈세 노인의 말(三老語)〉에 소개된 고사를 원용한 것이다.

옛날에 세 노인이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그들의 나이를 물어 보았다. 한 노인이 말했다. “나는 나이가 기억나지는 않고, 그저 소식적에 반고랑 같이 놀았던 기억만 나는군.” 그러자 또 한 노인이 말했다. “나는 바닷물이 뿜나

두 100수이다(辛亥八月二十二日, 作荏島之役, 凡目之所觀心之所記, 俱以成詩, 聊遣愁鬱. 凡百首)(《趙熙龍全集4》, 實是學舍古典文學硏究會 譯註, 52쪽)

31) 趙熙龍, 《趙熙龍全集4》(實是學舍古典文學硏究會 譯註), 81쪽.

32) 麻姑: 중국 전설 속의 선녀로 蒼海가 桑田으로 바뀌는 것을 세 번 보았다고 전해진다.

무 발로 변할 때마다 산가지 하나씩 내려왔더니만 지금은 방 열 칸에 가득 차고 말았지 뭐가!” 또 한 노인이 말했다. “나는 반도복숭아를 먹을 때마다 그 씨를 곤륜산 밑에 뱉었는데, 지금은 이미 곤륜산이랑 나란해졌다네.” 내가 보기에는 이 세 노인인들 하루살이나 조균과 다를 바가 무엇일까 싶다.(嘗有三老人相遇, 或問之年. 一人曰: “吾年不可記, 但憶少年時與盤古<sup>33)</sup>有舊.” 一人曰: “海水變桑田時, 吾輒下一籌, 爾來吾籌已滿十間屋.” 一人曰: “吾所食蟠桃<sup>34)</sup>, 棄其核於崑崙山下, 今已與崑山齊矣.” 以余觀之, 三子者與蜉蝣朝菌何以異哉!)<sup>35)</sup>

조희룡이 自註에서 ‘海屋添籌’라 한 것은 《東坡志林》에 나온 두 번째 노인의 말이고, ‘桃核齊山’이라 한 것은 세 번째 노인의 말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희룡은 소식 시문의 어구를 그대로 또는 약간 변형하여 자신의 시문에 활용하였다. 앞에서 예시한 것 외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상황에 딱 맞아 떨어지는 적절한 표현을 가져와 자신의 시문에 적절하게 녹여 넣음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함축적이고 상징적으로 잘 전달하고 있다. 이는 조희룡이 평소 소식의 시문을 얼마나 즐겨 읽었으며 또 얼마나 애착을 갖고 있었는지를 방증해 준다. 또한 대다수가 단지 소식이 사용했던 표현이나 어구가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소식의 가치관 및 삶의 태도까지 배우고자 했음을 볼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소식을 향한 조희룡의 추앙심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Ⅲ. 蘇軾 관련 일화의 활용

조희룡은 시문을 창작할 때 종종 소식과 관련된 일화를 전고로 활용하

33) 盤古 : 중국 신화에서 천지를 개벽한 존재로 전해진다.

34) 蟠桃 : 삼천 년 만에 한 번씩 열매를 맺는다는 전설 속의 복숭아로 西王母가 사는 崑崙山에서 자랐다고 전해진다.

35) 蘇軾, 《東坡志林》(文淵閣四庫全書本) 卷7.

기도 했다.

먼저 조희룡이 임자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시절에 자신을 따르던 두 체자 가운데 洪在郁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를 보자.

석숙을 보내 주어서 그 덕택으로 밥을 많이 먹었네. 고마우이. 내 편지를 부친 뒤에 마침 이 말린 고기가 왔으니 이것 역시 안노공의 녹포첩과 소장공의 양육첩에 해당할 만한 것이 아닌가? 허허. 함께 온 간장은 이곳에서는 이 맛이 감로수 한 방울에 맞먹을 만하네.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惠饋石鱸, 賴以加餐, 可謝. 拙書寄去之餘, 此鱸適至, 亦可當顏魯公鹿脯帖·蘇長公羊肉帖耶? 好呵. 眞醬, 此間此味, 可敵甘露一滴, 何謝如之?)<sup>36)</sup>

이 가운데 소장공의 양육첩에 관한 내용은 소식과 황정건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전고로 활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소식과 동시대인인 趙德麟이 다음과 같이 전언하고 있다.

황노직(황정건)이 소동파(소식)를 놀려서 말하기를 “옛날 왕우군(왕희지)의 글씨는 거위와 바꾸기 위한 글씨였는데, 한종유는 식탐이 많은 천성이라 매번 공(소식)의 글씨를 얻을 때마다 전수인 요린에게 가서 양고기 10여 근으로 바꾸니 두 어른의 글씨를 양고기 교환용 글씨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자 소동파가 크게 웃었다. 하루는 공이 한림원에서 황제의 생신 축하문을 쓰느라 바빴는데 한종유가 하루에 여러 통의 편지를 써서 답장을 받을 궁리를 하며 심부름꾼에게 마당에 서서 답장을 독촉하게 했다. 그러자 공이 웃으면서 “내가 오늘은 양을 안 잡는다고 전해라”라고 했다.(魯直戲東坡曰: “昔王右軍字爲換鵝字, 韓宗儒性饕餮, 每得公一帖, 於殿帥姚麟許換羊肉十數斤, 可名二丈書爲換羊書矣?” 坡大笑. 一日, 公在翰苑, 以聖節製撰紛冗, 宗儒日作數簡, 以圖報書, 使人立庭下督索甚急. 公笑謂曰: “傳語: 本官今日斷屠.”)<sup>37)</sup>

36) 趙熙龍, 〈洪生에게(寄洪生)〉(《趙熙龍全集5》, 實是學舍古典文學研究會 譯註, 106쪽)

37) 趙德麟, 《侯鯖錄》卷1, 녹포첩은 顏真卿이 永泰 元年(765)에 李光進에게 보낸 行書體의 편지로 宋 留元剛의 《忠義堂帖》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안에

조희룡은 이처럼 안진경과 소식의 일화를 끌어옴으로써 은연중에 자신을 안진경과 소식에 빗대 본 것이다.

《壺山外記》에 실린 〈金完喆傳〉에서 조희룡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완철은 정승 이은의 시중이다. …… 찬하여 말한다. “완철의 풍도를 들으면 겁 많은 자가 일어나고, 탐욕스런 자가 청렴하게 되며, 약한 자가 용기 있게 될 것이다. 소자침(소식)은 장돈이 낭떠러지로 가서 가파른 절벽에 글씨를 쓰는 것을 보고 그가 모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는데, 완철이야 어찌 모진 사람이겠는가!”(金完喆, 李相國潑家僮也. ……贊曰: “聞完喆之風者, 懦夫起, 貪夫廉, 弱者勇, 蘇子瞻, 見章惇臨絕壑題陡壁, 知其爲忍人, 完喆豈忍人乎哉!”)<sup>38)</sup>

이것은 김완철이 냉철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면서도 章惇처럼 모진 사람은 아니라고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한창 젊은 시절에 있었던 소식과 장돈의 일화를 끌어온 것이다.

(장돈은) 다시 과거에 응시한 결과 갑과로 급제하여 상락현령으로 임명되었다. 소식과 함께 종남산을 유람했는데 선유담에 이르자 못에 만 길이나 되는 절벽이 있는데 그 위에 나무를 걸쳐 놓았다. 장돈이 소식에게 읊하며 절벽에 글씨를 쓰라고 하자 소식이 무서워서 감히 쓰지 못하는데 장돈이 태연하게 걸어서 그곳으로 건너가 새끼줄을 드리우고 나뭇가지를 붙잡은 채 옷을 걷고 내려가 검은 먹물에 붓을 찍어 석벽에다 커다랗게 ‘소식과 장돈이 왔다’라고 썼다. 그러고 돌아와서는 표정도 바뀌지 않았다. 소식이 그의 등을 두드리며 “자네는 훗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것임에 틀림없네”라고 하자 장돈이 “어째서인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소식이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네”라고 했다. 이에 장돈이 크게 웃었다.(再舉甲科, 調商洛令. 與蘇軾游南山, 抵仙游潭, 潭

“병든 아내가 약을 먹고 있는데 사슴 고기가 좀 필요하니 신선하고 좋은 사슴 포가 있으면 좀 베풀어 주시기를 양망합니다(病妻服藥, 要少鹿肉, 脯有新好者, 望惠少許)”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38) 趙熙龍, 〈金完喆傳〉(《趙熙龍全集6》, 實是學舍古典文學研究會 譯註, 87쪽)

下臨絕壁萬仞，橫木其上。惇揖軾書壁，軾懼不敢書，惇平步過之，垂索挽樹，攝衣而下，以漆墨濡筆，大書石壁，曰：‘蘇軾章惇來’。既還，神彩不動。軾拊其背曰：“君他日必能殺人。”惇曰：“何也？”軾曰：“能自判命者能殺人也。”惇大笑。<sup>39)</sup>

장돈은 나중에 과연 친구인 소식을 당시로서는 死地라고 할 수 있는 惠州(지금의 廣東省)와 儋州(지금의 海南省)로 유배 보내는 등 모진 일을 많이 했다. 조희룡이 <金完喆傳>에서 굳이 이 일화를 끌어 온 것은 소식이 장돈에게 한 말이 조희룡에게 그만큼 깊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은 조희룡이 碧梧社 동인들과 함께 가졌던 모임에 대한 기록이다.

작년 임술(1862) 칠월 보름에 열 명의 노인과 함께 서원에서의 모임을 가졌는데, 나이가 모두 칠십 남짓으로 열 사람의 나이를 합하면 소동파(소식)의 시대에 미칠 수 있었다. 한 수의 시로써 이것을 언급하고자 하였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는데, 우연히 매암(曹湜: 1526~1572)의 시를 보니, 오로회에 부쳐서 지은 것인데, 이 시에 “만약 다섯 사람의 나이를 합하여 했수를 따져 보면, 계산된 나이가 송·원 시대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였으니, 나의 마음을 먼저 알았다고 할 만하다.(昨年壬戌七月之望, 與十老人, 作西園之會, 年皆七十餘, 合十人之壽, 可及東坡之世. 竊欲以一詩及此, 而未果, 偶閱梅庵詩, 題五老會, 有云: “若合五人論甲子, 計年堪作宋元人”, 可謂先得我心.)<sup>40)</sup>

이 글 중의 ‘서원에서의 모임(西園之會)’이라는 말은 바로 소식의 일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송 元祐 元年(1086)에 소식을 비롯한 당시 명사 16명이 가진 모임을 西園雅集이라고 하고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을 <西園雅集圖>라고 하는바, <서원아집도>는 누가 언제 어디서 회합한 일을 그린

39) 《宋史》卷41 <章惇傳>. 宋 王稱의 《東都事略》卷95 <列傳78>, 宋 祝穆의 《古今事文類聚前集》卷14 <遊山題名> 등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0) 趙熙龍, 《趙熙龍全集1》(實是學舍古典文學研究會 譯註), 115쪽.

것인지에 대하여 약간씩 다른 설이 몇 가지 있는데 북송 화가 米芾의 〈西園雅集圖記〉에 의하면 이 그림은 蘇軾·王詵·蔡肇·李之儀·蘇轍·黃庭堅·李公麟·晁補之·張耒·鄭靖老·秦觀·陳景元·米芾·王欽臣·圓通大師·劉涇 등 북송 명사 16명이 英宗 황제의 부마인 왕선의 정원에 모여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그린 이공린(1049~1106)의 채색화라고 한다. 또 이 그림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첫 번째 부분은 소식이 글씨 쓰는 모습을 왕선·채조·이지의·소철 등이 구경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공린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황정건·조보지·장퇴·정정로 등이 구경하는 장면이고, 세 번째 부분은 진관이 커다란 노송나무 밑에서 도사 진경원의 阮咸 연주에 귀를 기울이는 장면이고, 네 번째 부분은 미불이 바위에 글씨 쓰는 모습을 왕흡신이 구경하는 장면이고, 다섯 번째 부분은 유경이 원통대사의 말씀을 경청하는 장면이라고 한다.<sup>41)</sup>

임술년에 거행되었던 이 모임 외에도 조희룡은 평소 벽오사 동인들과 함께 꾸준히 모임을 가졌는데, 이러한 모임은 동인들의 시문집 속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남아 전해지고 있다. 일례로, 조희룡이 67세였던 1855년 단오절에도 西園雅集을 모방하여 다섯 노인과 다섯 젊은이가 溪堂에서 아회를 가졌는데,<sup>42)</sup> 柳最鎭의 《樵山雜著》에 이 모임을 그린 그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을묘년(1855년, 철종7) 단오절에 늙은 벗 석경이 서원의 송단에서 놀기로 약속했는데 마침 아침에 비가 와서 다섯 노인과 다섯 젊은이가 계당에서 모이게 되었다. 그때 가랑비가 잠시 멈추고 바람과 날씨는 맑고 깨끗했다. 그리하여 나란히 시를 읊고 무릎을 맞대고 앉아 시를 외우며 담소를 나누었으니 진실로 쉽게 만날 수 없는 좋은 모임이었다. …… 해산 유숙에게 부탁하여 갈필로 그 뜻을 담아 각각 그 초상을 그리게 했으니, 마침 등

41) 류종목, 《소동과 문학의 현장 속으로 2》,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103쪽 및 賀復徵, 《文章辨體彙選》 卷584 〈米芾西園雅集圖記〉 참조.

42) 이선옥, 《우봉 조희룡—19세기 목장의 영수》, 파주: 들베개, 2017, 310-311쪽 참조.

불의 그림자가 벽에 비치는 것과 같아서 수염과 머리카락이 그대로 드러났으니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혹 누구냐고 물어온즉 하나하나 가리키며 알려주기가 귀찮아서 〈西園雅集序〉를 모방하여 대략 기록한다. 주인 자리에서 방관을 쓰고 담배를 피우는 이는 산초 유취진이요, 곁에 앉아 손으로 염주를 세는 이는 한치순이요, 연화좌에서 도롱이 입고 샷갓을 쓴 채 책상다리로 무릎을 끌어안고 있는 이는 만취 이팔원이요, 검은 두건에 옷깃을 여미고 멀리 바라보는 이는 석경 이기복이요, 나무 그늘에 다가가 팔짱을 낀 채 경청하고 있는 이는 미촌 김익용이요, 얼굴을 돌리고 수염을 쓰디듬으며 마구 떠드는 이는 우봉 조희룡이다.(歲乙卯蒲節，石經老友，約西園松壇之遊，而值朝雨，五老五少年，仍會于溪堂。時輕霏乍收，風日澄妍。聯吟促膝，從誦談笑，誠一會之未易數數者也。……命蕙山劉淑，渴筆寫意，各肖其像，如燈影之照壁，鬚髮現現，謂非其人而不可也。而有不及與於此會者，或相質問，則媿於一一指示，昉〈西園雅集序〉，略記之。而主席冠綌烟者，山樵柳最鎮也；傍坐弄手珠者，韓生致諄也；蓮座臺笠抱膝者，李八元晚翠也；烏巾斂衽遐觀者，石經李基福也；近樹陰拱手諦聽者，美村金益鏞也；背面掀髯縱談者，趙熙龍又峰也。)<sup>43)</sup>

劉淑이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현재 그림은 남아 있지 않지만 조희룡의 이 글을 통하여 이렇듯 함께 모여 雅會를 갖고 그 장면을 그림으로도 그렸으며, 특히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특징을 잘 살려서 실제와 비슷하게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조희룡이 1862년 서원에서의 모임을 기록할 때, “작년 입술(1862) 칠월 보름에 열 명의 노인과 함께 서원에서의 모임을 가졌는데, 나이가 모두 칠십 남짓으로 열 사람의 나이를 합하면 소동파(소식)의 시대에 미칠 수 있었다”라고 하며 굳이 소식을 거론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이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의 나이가 그만큼 많음을 강조한 것이겠지만, 간접적으로는 자신들의 모임을 소식을 위시하여 많은 문인들이 모였던 西園雅集에 빗대어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43) <<중오회사의상>에 쓰다(題重五會寫意像)

조희룡은 자신의 문장에 함축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식 문장의 大意를 인용하기도 했다.

지금 드리는 여연은 바로 노형의 돌아가신 숙부께서 평생 사용하시던 물건인데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형의 숙부께서 돌아가신 후에 어디로 굴러다녔는지 알지 못했는데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나타날 줄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조개 무너로 잘 이루어진 한 조각 유품이 옛날 그대로여서, 손으로 어루만지다 보니 물건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없어졌다는 감개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미 황씨의 옛 물건임을 알았고 또 준경과 서로 왕래하는 처지라 마음속으로 이 물건을 가져다 주고 싶지만 이 사람은 한창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중이라 이 버루를 수장함에 있어서 <四菩薩閣記>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형에게 드리오니 반드시 서체에 보관해 두셨다가 이 사람이 집을 마련한 후에 전해 준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此呈蠡硯, 則先阮丈平生所用物, 伏未知識之否. 阮丈撒瑟之後, 不知流轉何處, 豈意復見於廿載之後? 而蠡蛤天成一片如故, 摩挲之餘, 不覺物是人非之感. 既知黃氏舊物, 又與俊卿相從, 竊欲舉贈, 而此人方棲屑, 其收藏, 未必能如<四菩薩閣>所云. 轉呈老兄, 當鎮文硯, 待此人作家後付之, 幸甚.)<sup>44)</sup>

이 글은 조희룡이 노형에게 노형의 숙부가 사용했던 蠡硯이라는 버루를 말기면서 쓴 글로, 문장의 중간에 <四菩薩閣記><sup>45)</sup>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할 수가 없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사보살각이 지어진 유래를 기록한 소식의 <사보살각기>에 담긴 일화를 전고로 활용한 것이다. 소식이 어느 날 우연히 唐 玄宗 때의 유명한 화가 吳道子가 그린 네 폭의 보살상을 얻게 되어, 평소 그림을 좋아하셨던 아버지 蘇洵(1009~1066)께 드렸다. 후일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자신과 절친했던 승려 惟簡의 권유로 아버지가 가장 아끼셨던 그 그림을 절에 시주하게 되었다. 이때 소식이 유간에게 이것을 아주 살뜰하게 보살펴 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유간이 특별히 사보살각을

44) 趙熙龍, 《趙熙龍全集5》(實是學舍古典文學硏究會 譯註), 151쪽.

45) 蘇軾, 《東坡全集》(文淵閣四庫全書本) 卷35.

지어 그림과 함께 소순의 화상까지 모시게 되었다.

〈사보살각기〉는 《古文眞寶》에도 수록되어 있는 名文이므로 당시 조선 문인들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고 기본적으로 학습하였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희룡이 이와 같이 소식과 비슷한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소식의 일화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그가 평소에 소식의 시문을 즐겨 읽었고 또 그만큼 소식에 남다른 애착이 있었기 때문임에 틀림없다.

조희룡은 이처럼 소식과 관련된 다양한 일화를 자신의 시문에 활용함으로써 시문의 함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이러한 用典을 통해 단순히 소식의 일화를 소개하거나 인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식을 마음속 깊이 추앙하고 소식과 깊은 유대를 맺고 싶어 하는 조희룡의 심리도 엿볼 수 있다.

#### IV. 결론

이상으로 조선 후기 문인 조희룡 시문의 소식 관련 用典 양상을 살펴본 결과, 조희룡의 시문 가운데 소식의 시문에 사용되었던 어구를 차용한 예와 소식과 관련된 일화를 활용한 예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조희룡이 자신의 시문을 창작함에 있어 소식의 어구 혹은 관련 일화를 전고로 자주 활용했다는 것은 조희룡이 평소 소식의 시문을 즐겨 읽었다는 사실과 소식에 대한 흥미가 남달랐다는 사실을 방증해 준다.

조희룡이 평소 소식의 시에 추화하는 화소시를 여러 수 창작하기도 했고, 임자도 유배 시절 〈동파입극도〉를 좋아하여 이를 즐겨 감상했음은 물론 직접 모사하거나 화상찬을 쓰기도 했으며, 소식의 생일인 음력 12월 19일에 소식을 추모하는 행사를 거행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명확해진다.<sup>46)</sup> 게다가 조희룡 스스로 “程頤나 소식과 같

46) 조희룡의 소식 애호 및 추앙 양상에 대해서는 拙稿, 〈조선 후기 문인 趙熙龍의 蘇軾 추앙 양상〉(中國語文學會, 《中國語文學誌》 제62집, 2018)에 상세하다.

은 시대에 산다면 소식을 따라 노닐며 일생을 마치겠다”<sup>47)</sup>라고 하여 소식을 향한 흠모의 정을 서슴없이 표현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그가 이토록 소식을 추앙하고 학습한 원인이 무엇일까?

당연한 이치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소식 시문 자체의 매력과 예술성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원인은 소식의 위인과 인생관에 대한 동경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유배’라는 힘겨웠던 그의 인생역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소식은 오랫동안 유배지를 전전하면서도 삶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비판하지 않는 초연한 태도를 평생 견지하여, 후대의 문인들, 특히 유배·좌천 등 그와 비슷한 인생역정을 겪은 문인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었다. 조희룡은 입자도 유배 기간이 1년 8개월로, 상대적으로 보자면 소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간이 짧지만, 63세나 되는 고령에 육지와 단절된 섬으로 쫓겨나 외로이 생활하는 데서 오는 고통과 좌절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나눌 다정한 벗과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던 조희룡에게 소식의 시문은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는 좋은 처방이 되어 주었을 것이다.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자신의 아픔을 치유받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일시’는 문학치료의 효과 가운데 하나로 치유의 일차적 과정은 타자가 경험한 괴로운 트라우마에 독자가 자기 감정을 이입함으로써 ‘同類療法’의 효과를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류요법을 동일시·공감

47) 조희룡은 “지난번에 지로와 함께 송나라 사람에 대해 논하기를, ‘우리가 만약 이천(程頤)이나 동파(소식)와 같은 시대에 산다면 자제는 이천에게 보내어 일을 하며 배우게 하고, 나는 동파를 따라 노닐며 일생을 마치겠다’라고 하면서, 함께 한 번 웃었다(向與芝老論宋人: ‘若與伊川·東坡并世, 子弟可送伊川筵前執役, 吾則從東坡遊, 以了一生.’ 相與一笑)”라고 말한 바 있다(趙熙龍, 《趙熙龍全集1》(實是學舍古典文學研究會 譯註), 126쪽). 이처럼 자제는 정이에게 보내어 일을 하며 배우게 한다는 것은 결국 학문적으로는 일세를 풍미했던 성리학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식을 이토록 흠모했던 것은 소식의 爲人과 문학세계에 도취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empathy)이라고도 하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sup>48)</sup>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조희룡이 적극적으로 소식의 시문을 학습하고 또 자신의 시문 창작에 있어서도 소식과 관련된 典故를 자주 사용한 것 역시 그것을 통해 마음의 고통을 치유받고자 하는 동류요법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앞에서 살펴본 소식 관련 用典 사례들이 대부분 조희룡의 임자도 유배 시기 작품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조희룡의 글씨와 시가 金樞(1805~1864)에게 “그의 작품을 보니 그의 글씨는 조화를 잘 이루었고 시는 묘경에 들었는데 한 글자 한 마디가 모두 미산(소식)을 도습했으니 참으로 파옹(소식)의 후신이였다(抽觀, 其筆參造化, 詩入妙境, 一字一言, 皆蹈襲峭山, 眞坡翁後身也)<sup>49)</sup>”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은 바로 조희룡의 소식에 대한 학습과 흥미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 <References>

1. Byun Hak Soo. *Literature Therapy*. Seoul: Hakjisa, 2007.
2. Cho Kyubaek. *Su Dongpo's Influences on the Korean Literature Written in Chinese*. Seoul: Myungmundang, 2016.
3. Choi Kisuk. “The Exile and the Introspection of an Artist”. *Journal of Korean Culture Study* Vol.9, (2005).

48) 변학수, 《문학치료》, 서울: 학지사, 2007, 73쪽 참조.

49) 金樞, 《艱貞日錄》(《慶尚道丹城縣社會資料集3》),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간정일록》은 海寄翁 金樞이 1862년 壬戌民亂에 연루되어 1년 동안 전라도 영광 임자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기록한 일기이다. 김령은 경상도 단성현의 사대부로서 진주민란을 모의했다는 혐의로 1862년 임자도에 유배되었다. 그가 임자도에 머문 기간은 채 1년이 못 되었는데, 그곳에서 조희룡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의 시문을 접하고는 그에게 빠져들었다. 이선옥, 《우봉 조희룡—19세기 목장의 영수》, 파주: 돌베개, 2017, 337-338쪽 참조.

4. Jiwon Shin. "Naming Collector's Studio in the Culture of Collecting Su Dongpo in Early Nineteenth Century Korea and China". *Journal of Korean culture* Vol.45, (2009).
5. Jo Heeryong/ Silsagusi Gojeonmunhak Yeonguhui. *The Complete Works of Cho Heeryong*. Seoul: Hangil Art, 1999.
6. Kang Kyung Hee. "A Study on Tendency to Revere Su Shih and the Su Shih's Portrait with a Bamboo Hat and Wooden Shoes in the Late of Chosun Dynasty".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65, (2010).
7. Lee Seonok. *Wubong Jo Heeryong—A Leader of the Art World During 19th Century*. Paju: Dolbegae, 2017.
8. Liu Jongmok. *Field Studies on the Creation Sites of Su Dongpo's Literature*.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5.
9. Liu So Jin. *A Study on Su Shi's Influence on the Poetry of the Gaoli Dynasty and the Chaoxian Dynasty*. Beijing: Peking University, 2013.
10. Liu Sojin. "Some Aspects of Jo Heeryong(趙熙龍)'s Respect to Su Shi(蘇軾)".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62, (2018).
11. Su Shi/ Liu Jongmok. *Sushishiji translated into Korean 1*.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2.
12. Su Shi/ Liu Jongmok. *Sushishiji translated into Korean 2*.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2.
13. Su Shi/ Wang Wengao. *Sushishiji*. Beijing: Zhonghua Shuju, 1987.
14. Su Shi. *Dongpoquanji*. Wenyuange Sikuquanshu.

< 참고문헌 >

1. 변학수, 《문학치료》, 서울: 학지사, 2007.
2. 조규백, 《한국 한문학에 끼친 소동파의 영향》, 서울: 명문당, 2016.
3. 최기숙, 〈예술가의 유배 체험과 내적 성찰〉, 《한국문화연구》, 제9권, 2005.
4. Jiwon Shin, 〈당호를 통해서 본 19세기초 소동파 관련 서화 소장 문화와 대청 문화 교류〉, 《한국문화》 제45호, 2009.
5. 趙熙龍 著/ 實是學舍古典文學研究會 譯註, 《趙熙龍全集1-6》, 서울: 한길아트, 1999.
6. 姜慶姬, 〈朝鮮後期 崇蘇熱과 東坡笠履圖〉, 韓國中國語文學研究會, 《中國語文學論集》 제65호, 2010.
7. 이선옥, 《우봉 조희룡—19세기 목장의 영수》, 과주: 돌베개, 2017.
8. 류종목, 《소동파와 문학의 현장 속으로 2》,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9. 柳素眞, 《蘇軾對高麗及朝鮮漢文詩壇的影響研究》, 北京: 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10. 류소진, 〈조선 후기 문인 趙熙龍의 蘇軾 추앙 양상〉, 《中國語文學誌》 제62집, 2018.
11. 蘇軾 著/ 柳種陸 譯註, 《정본완역 蘇東坡詩集 1》,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12. 蘇軾 著/ 柳種陸 譯註, 《정본완역 蘇東坡詩集 2》,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13. 蘇軾 著/ 王文誥 輯註, 《蘇軾詩集》, 北京: 中華書局, 1987.
14. 蘇軾, 《東坡全集》(文淵閣四庫全書本)

< Abstract >

Jo Heeryong(趙熙龍) was one of famous writers during the late Chosun dynasty, he quoted several words and phrases which had been used in Su Shi(蘇軾)'s works to his own works. And he also put some episodes which relate to Su Shi to his own works. This means that he enjoyed reading Su Shi's works and he admired Su Shi himself.

The fundamental reason why Jo Heeryong so deeply admired Su Shi may be attributed to the attraction and the artistic quality in his works. But I think there is another important reason: his respect for Su Shi's personality and his optimistic and detached view of life.

Key Words : Jo Heeryong(趙熙龍), Su Shi(蘇軾), Quotation of Words and Phrases(語典), Quotation of Episodes(事典), Chosun(朝鮮)

